

동경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차세대 인문사회학 육성프로그램에 의한 해외파견
귀국보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짜

2010년 10월 17일

파견생의 기본정보

기무라 타쿠(木村拓), 한국조선문화연구전공, 개인파견

연구 주제

조선후기 외교관계등록의 수집과 분석

현지에서의 활동

(1) 현지의 기본정보

한국,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 체재 기간

2010년 7월 30일 출발, 동년 9월 27일 귀국, 체재기간 60일

주요 연구성과

(1) 연구계획의 개요

조선후기(17세기~19세기)의 외교관계사 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자료로는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연대기 사료, 혹은 《동문회고》(중국관계), 《통문관지》(중국·일본관계), 《증정교린지》(일본관계), 《비변사등록》(일본관계) 등 편찬된 사료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후대에 편찬된 사료이고 일차사료에 더 가까운 사료로서 관청의 등록(주로 관청이 다룬 공문서의 등사기록)을 들 수 있다. 외교관계의 등록은 모두 조선후기의 것이지만 적지 않은 양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남아 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조선후기의 외교관계등록을 가능한 한 수집·분석하여 조선후기의 외교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2) 실제로 달성된 성과

1. 외교관계 등록(謄錄)·의궤(儀軌)의 사료적 특징

① 중국관계

등록: 예조(禮曹)의 속사(屬司)인 전향사(典享司)·전객사(典客司)·계제사(稽制司)가 각각 작성한 등록이 있다. 내용은 중국사절의 접대에 관한 것이다.

영접도감의궤: 영접도감(迎接都監: 중국사절의 접대를 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기관)의 업무집행보고서이다. 영접도감은 기본적으로 도청(都廳)·응변색(應辨色)·군색(軍色)·반선색(盤膳色)·연향색(宴享色)·미면색(米麵色) 등 여섯기관으로 구성되고 의궤도 각 기관마다 작성되었다.

② 일본관계

등록: 주로 특정 사안마다 작성되고 모두 합치면 30 여종에 이른다. 거의 다 예조 전객사의 등록이다.

2. 외교관계 의궤·등록사료를 통해 보이는 것

조선왕조의 외교업무는 외교담당관청의 속사인 전객사·계제사·전향사가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었다. 대중국외교에 있어서는 전객사·계제사·전향사가 각기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시기관인 영접도감도 따로 설치되었다. 한편 예조의 속사 중 대일본외교 업무를 담당한 예조 속사는 전객사뿐이었다. 그 이유는 대일본외교의 실제적인 업무는 경상도 동래부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3) 향후 연구 전망

전망되는 과제: 조선왕조 외교 시스템의 해명

① 조선왕조의 외교업무의 수행 과정

이번 조사를 통해 조선왕조의 대중국·일본외교 업무를 담당한 구체적인 관청을 알 수 있었는데, 남은 과제로는 상설관청인 예조의 속사(전객사·계제사·전향사)와 임시 기관인 영접도감과의 역할분담 문제(대중국외교), 예조 전객사와 동내부의 역할분담 문제(대일본외교)를 들 수 있다.

② 조선왕조의 외교정책의 결정 과정

외교정책의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한 기관으로 비변사를 들 수 있다. 비변사(備邊司)

는 16 세기 이후 군국기무(軍國機務)를 합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었는데 외교정책의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비변사에는 예조의 장관인 예조판서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조선왕조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교 현안의 처리에 대해 비변사와 예조가 어떻게 연계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고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상기 문제들을 분석하는 것은 조선왕조 외교 시스템의 해명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